

걸으면서 보았네, 때문지 않은 울릉도 속살

'신비의 섬'으로 힐링 여행

경북

쉽게 오갈수 없어 더욱 신비롭고 갈망하게 되는 여름 여행지, 바로 울릉도다. 울릉도는 하늘이 길을 허락해야만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섬이다. 동해의 거센 물살 탓에 풍량이 거칠면 배가 결항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뱃길도 멀다. 포항에서 217km, 후포에서 159km 떨어져 있어 쾌속선이라도 2-3시간 배를 타야 한다. 양복 길을 생각하면 일정 중 하루를 온전히 오가는데만 소요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미지는독야청청(獨野靑靑) 고집스럽다. 제주도처럼 수백편 비행기편으로 연결된 것도 아니고, 남해나 서해의 수많은 섬들처럼 다리가 놓이거나 다른 섬들과 울망줄망 어울린 것도 아니다. 질푼듯 동해 먼 바다에 홀로 우뚝 솟아있다.

그래도 과거에는 '외로운 섬'이라고 불릴 만큼 인적이 뜸했던 울릉도가, 요즘에는 때문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찾아나서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각광받는 인기 여행지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유명 관광지라 하면 아찔한 야경이나 편의시설이 발달하지 않았지만, 그만큼 소박한 섬총각의 투박한 매력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있다. 같은 화산섬이라도 제주도가 풍만하고 부드러운 여성의 이미지라면, 울릉도는 선 굵은 남성의 이미지로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온통 삐죽삐죽 솟은 기암괴석과 가파른 절벽의 장엄한 선들이 눈길을 사로잡는 곳이다.

아직까지 울 여름 휴가지를 정하지 않았다면 울릉도로 한번 떠나보면 어떨까? 울릉도는 내륙보다 기온이 낮아데다, 시원한 해풍의 영향으로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해 피서지로 제격이다.

◇걸어야 제대로 보인다.

'신비의 섬'이라 불리는 울릉도. 수천년 오래된 원시림과 자연 그대로의 풍경이 잘 보존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울릉도 여행의 콘셉트는 '힐링'으로 잡고, 매일 하루 1시간 남짓한 트레킹 코스를 걷기로 했다. 원시림을 걸으며 도심에서 찌든 피부에 상쾌한 바닷바람과 숲향기를 가득 담아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첫번째로 선택한 코스는 나리분지에서 신령수 약수터까지 가는 '나리분지 숲길'이다. 울릉도 최고봉 성인봉으로 향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길이 넓고 평탄해 40분 남짓 간단히 산책을 즐기기에 부담없는 곳이다. 울릉도 유일한 평지인 나리분지에는 너른 들판 가득히 푸르른 나무들이 자라고 있다. 작은 하얀꽃이 동그랗게 핀 명이나물도 구경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하자 오후의 나른한 햇살이 하늘 높이 쪽쪽 뻗은 나무들 사이로 스며들면서 잎사귀들이 투명한 초록색으로 반짝인다. 은 숲이 반짝반짝 빛나며 세포 하나하나까지 피톤치드로 채워지는 느낌이다. 너도밤나무와 우산고로쇠, 마가목 등 오래된 큰 나무들이 가져다주는 편안함이 세상 모든 근심들을 가지끝에 살포시 내려놓아도 좋을 것 같다.

내수전에서 석포로 이어지는 길은 양치식물의 천국이다. 울릉 돌레길의 일부로, 해안선을 따라 원시림의 숲속을 걷는 길이다. 현재 이 구간은 울릉 일주도로에서 유일하게



울릉도 본섬에서 바라보는 관음도 풍경이 한 장의 엽서처럼 아름답다.

보존 잘 된 수 천년 원시림

내수전~석포 양치식물 천국

저동~도동 해안 돌레길 백미

주상절리 관음도 다리 건너고

대포감은 모노레일 타고 올라

연결되지 않은 구간이어서 산길로만 오갈 수 있다. 울릉 일주도로는 이 구간 공사가 완료되면 울 연말쯤 완성되게 된다.

숲을 걸으면 평소 관심조차 없었던 나무 하나, 풀 하나가 오롯이 눈에 담긴다. 자연이 가져다주는 여유로운 덕분일 것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낸 줄 착각하고 있는 양, 잎이 7-8개 방사형으로 뻗어 꽃보다 더 예쁜 작은 풀잎이 신기하다. 막걸리나 술로 담가먹는다는 빨간 열매의 마가목도 알게 됐다. 그 중 가장 놀라운 풍경은 계속 위아래로 삐죽삐죽 양치식물 군락이다. 습기가 많고 나무 양치식물이 덩굴 높이만큼 자라 기세를 뽐낸다. 식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대중 '양치식물'이라 통칭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잎들의 모양이 여러가지여서 그 종류가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또 길을 걷는 내내 숲 사이로 푸르른 바다가 내려다보일 때마다 죽도가 친구가 되어 준다.

마지막 걷기길로 선택한 것은 울릉도 최고로 꼽히는 해안 돌레길 중 저동과 도동을 연결하는 행남 해안산책로다. 원래는 해변을 따라 걸을 수 있지만 근래 일부 구간이 공사중으로, 저동에서 출발하면 한참 가파른 산길을 30여분 정도 걸어야 비로소 해변산책로에 닿을 수 있다. 꽤나 진을 뺐지만 바다에 닿는 즉시 이런 수고로움 정도는 기꺼이 감수할 만한 비경을 선사한다. 바위와 화산활동의 흔적이 남아있는 절벽, 그리고 파도가 만든 천혜의 풍성한 해식 동굴 사이로 아슬아슬 이어지는 길이 다. 이 길을 걷는 최고의 매력 포인트는 마치 사파이어처럼, 푸른 잉크를 풀어놓은 것처럼 투명하게 빛나는 울릉도 특유의 물빛을 잠시도 쉬지 않고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슴까지 시원하게 만들어준다.

◇해안도로 따라, 준비한 명소들

관음도는 한 때 주민이 살기도 했지만 지금은 무인도인 섬으로 본섬과 불과 100여m 떨어져 섬이다. 2012년부터 다리로 연결돼 관광객들에게 공개됐는데, 일단 울릉도 본섬에서 바라보는 관음도 풍경이 한 장의 엽서처럼 아름답다.

다리를 건너면서 섬 전경보다 먼저 감각을 사로잡는 것은 현수교 주변 바위벼랑에 하얗게 붙어있는 갯이갈매기들이다. 워낙



'대포감'은 울릉도를 찾은 이들이라면 꼭 사진 한장쯤 갖고 있는 관광명소다.

그 수가 많아 이들의 끼룩거리는 소리가 마치 거대한 합창소리같다. 풍경을 담으려 셔터를 누르면 마치 모델인 양 알아서 찾아와 화각 내 포인트에 포착돼 주는 센스까지 갖췄다. 다리 아래로는 용암이 급속하게 식으면서 만들어진 방사형의 주상절리와, 바닥까지 환하게 들여다 보이는 물빛이 마음을 흥시킨다. 관음도는 30-40분 정도면 둘러볼 수 있다.

관음도에서 반대로 울릉도 본섬을 쪽을 향해 보면 세계의 바위가 비죽비죽 솟아오른 비경이 눈에 들어온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지상에 내려와 목욕하던 세 선녀가 바위로 변했다는 전설이 전해오는 삼선암(三仙巖)이다. 목욕하러 내려간 선녀가 격정된 욕망상제가 용감한 장수와 날선 용을 내려보냈는데 막내 선녀가 그만 장수와 눈이 맞아 정을 통하면서, 욕망상제가 크게 노해 세 선녀를 모두 돌로 만들어 버렸다는 스토리가 전해진다. 해안도로를 조금 더 따라가면 코끼리 바위라고도 불리는 '공암'도 만날 수 있다.

'대포감'은 울릉도를 찾은 이들이라면 꼭 사진 한장쯤 갖고 있는 관광명소다. 소위 울릉도의 들쭉날쭉 아름다운 해안선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이다. 울릉도는 예로부터 좋은 나무가 많아 배를 만들기 위한 목재를 구하기 위해 찾아오는 이들이 많았다고 한다. 완성한 새



내수전에서 섬쪽으로 이어지는 트레킹로는 양치식물의 천국이다. 울릉 돌레길의 일부로, 해안선을 따라 원시림의 숲속을 걸을 수 있다.

배를 본토로 가져가기 위해 돛을 높이 달고 육지로 바람이 불 때까지 바위 구멍에 돛줄을 매어 놓고 기다렸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 '대포감(待風坎)'이다. 이곳은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갈 수 있다. 태하 등대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일품이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매일신문 한윤조 기자
cgdream@msnet.co.kr
/사진=매일신문 이채근 선임기자 mincho@

후포항서 배 타면 2시간 덜 걸려요

울릉도 여행 팁

▲배, 어디서 탈까?=>흔히 울릉도를 가기 위해서는 포항여객선터미널을 주로 이용하게 된다. 배삯은 일반석 기준 주중 왕복 12만9000원, 주말 할증 14만1600원으로 시간은 편도 3시간 10분 정도가 소요된다. 하지만 배 멀미가 심한 이들이라면 후포항을 이용해 배 타는 시간을 조금 줄일수도 있다. 차로 이동하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는 반면 배 탑승 시간은 편도 2시간으로 줄어든다. 일반적 기준 왕복 12만원, 주말 13만2천원이지만 인터

넷으로 사전 예매하면 할인이 적용된다.

▲울릉도 여행 일정=워낙 경치가 아름다운 곳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만큼 2박3일 일정을 통해 하나하나 충분히 둘러볼 것을 추천한다.

▲패키지 vs 자유여행=울릉도 여행은 여행사별로 패키지 상품이 많다. 하지만 나만의 일정으로 보다 울릉도의 속살을 깊이있게 엿보고 싶다면 자유여행을 추천한다. 이 때 렌트카는 필수다. 또 사전에 정보를 알아보고 전방대 캐이블거나 속도·독도 배편 등은 미리 예약해 두는 것이 편리하다.



新韓報유림은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회원사가 공동 취재·보도합니다.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멤버십

회원특전

-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이 결제시만 가능함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 (금, 토, 공휴일 전일)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 ₩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 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객실 이용 시 Check Out 14시 연장
- 에어로빅,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고객 50% DC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보증금 및 연회비

구분	보증금	연회비 (VAT포함)	비고 (2018년 기준)
개인	850 만원	₩ 1,920,000	1구좌 기명1인
가족	1275 만원	₩ 3,140,000	1구좌 직계 1인 포함 / 1인 추가 시 425만원
법인	1700 만원	₩ 4,350,000	1구좌 기명2인 무기명1인

